대상

지워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남긴 말은 지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다친 사람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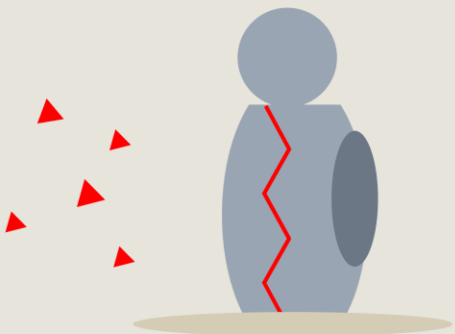


최우수상

Ctrl + Z 가

안 되는것이 있습니다









되돌려도,

자국은 남습니다

만들기 전에,

동의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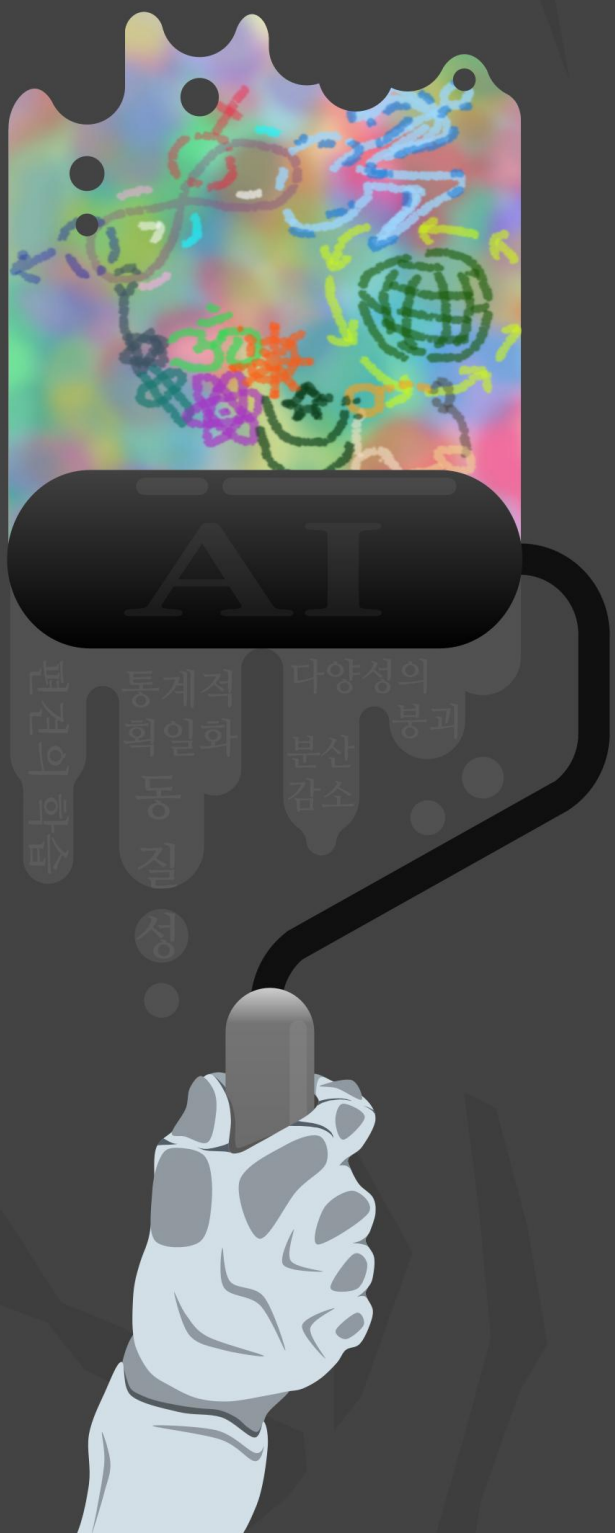
문의 :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TEL : 031) 400 - 4338 E-MAIL : ehrc@hanyang.ac.kr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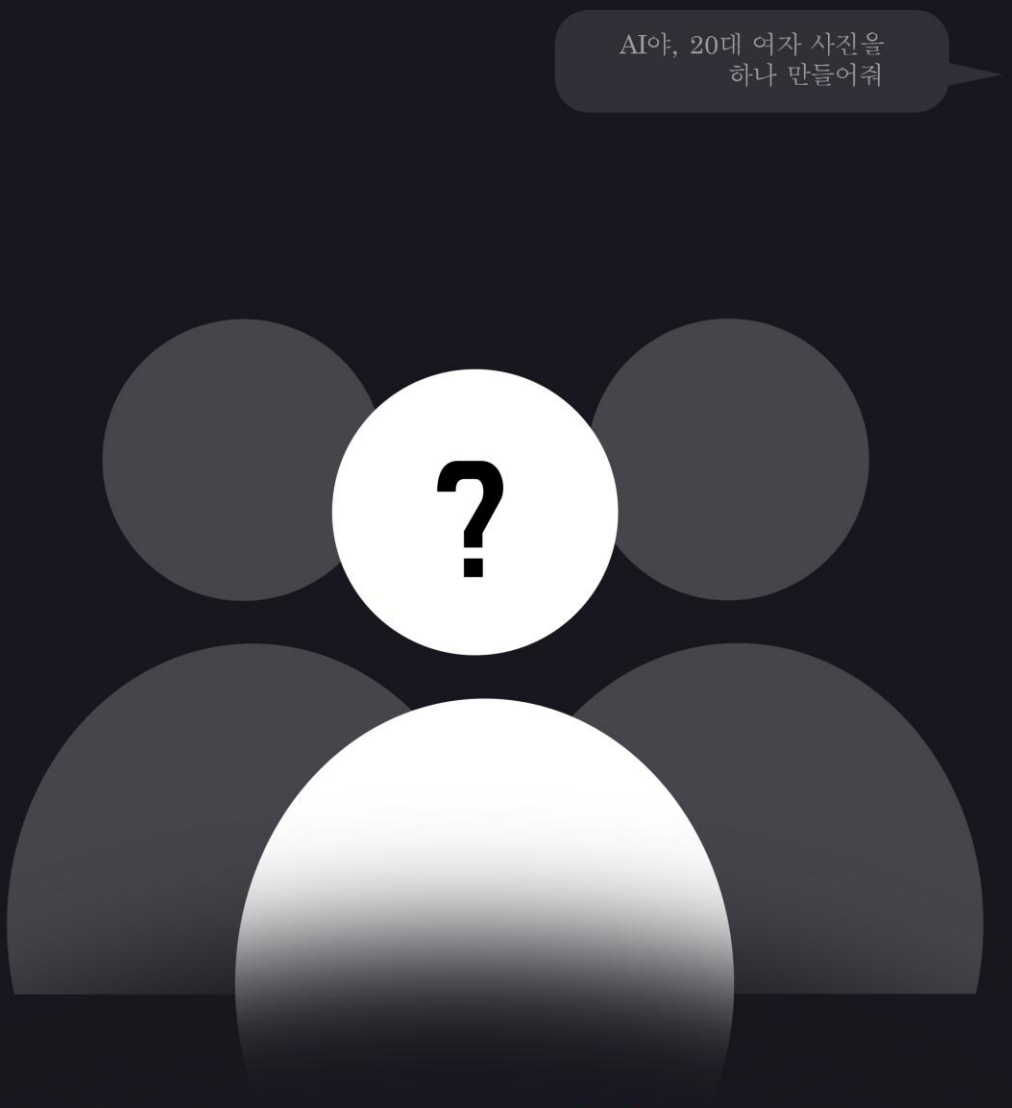

AI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존중
AI
가해자의 손가락이 가벼워질 때
피해자의 고통은 무거워집니다
AI는 상처를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존중과 책임 있는 사용이 인권을 지킵니다.——

우수상

편견의 평균에 수렴하는 생성형 AI. 소외당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우수상



AI가 만든 가짜는, 누구의 진짜를 빌렸을까?

AI는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사진, 목소리, 글, 그리고 삶이 있습니다

기술은 편리할 수 있지만,
사람의 존엄은 동의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